

서울 주보

제2355호 2021년 8월 29일(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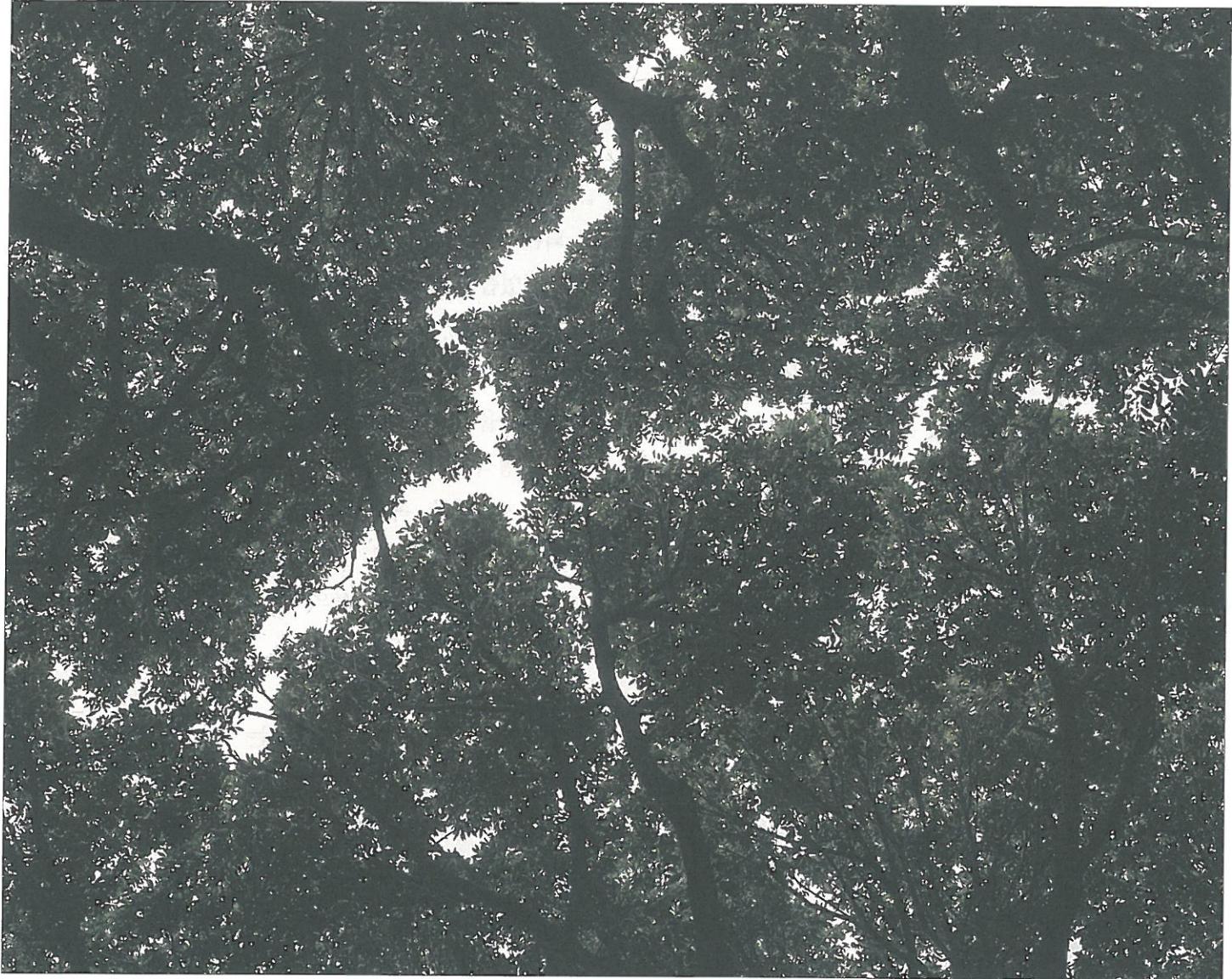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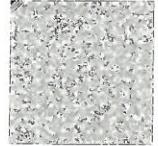
연중 제22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
치시기나이다.

제1독서 | 신명 4,1-2.6-8

화답송 |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1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흄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
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
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 야고 1,17-18.21ㄴ-22.27

복음환호송 | 야고 1,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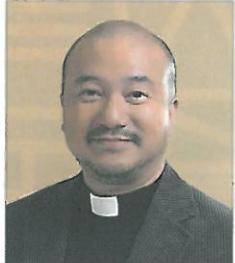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
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 마르 7,1-8.14-15.21-23

영성체송 |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
옵니까!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깨끗하고 흠 없는

손을 씻지 않는다면 따져 묻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손을 씻어 지문이 사라졌다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배우인 그는 팬데믹으로 공연 기회가 줄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소독제로 손을 씻었다는군요. 다행히 요즘 공연을 준비한다는 그는 끈질긴 팬데믹의 위협에도 무사히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부디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다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은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조상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겼습니다. “어째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위선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곧 …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받은 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법은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잘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치열하게 율법을 살고(바리사이), 연구한(율법 학자)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복음 속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율법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단지 외적인 형식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하게 규율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연민이 부족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우러남 없는, 형식에 치우친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는 생명의 법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하느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 궁핍한 형제를 돋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사정을 살펴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무관심 속에 고립된 형제를 찾아 만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앙입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마르 7,14)

“걷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 우리 생활에서 무언가를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거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거나 할 때 이 말을 쓰곤 하지요. 제주도의 숲속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유별남 레오플도 | 가톨릭사진가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아 영세자들 중에 종종 볼 수 있듯이 저도 사춘기를 지나며 냉담이 시작되어 소록도에서 근무하게 될 때까지 약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소록도는 그 존재의 특별함 때문인지 매우 종교적인 섬으로, 직원들의 약 3분의 2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수요일 저녁에는 모두 성당으로 모였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성당을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록도성당의 주임이었던 한조룡 신부님의 모습은 냉담 중이던 저조차도 ‘종교란, 성직자란 저래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하였고, 주일미사 때 서로에게 유럽식 볼 키스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마리안나-마가렛 할매의 모습은 사람 간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록도성당의 특별한 은총 덕에, 그리고 그해에 만남을 시작한 아내 덕에 저는 자연스럽게 냉담을 풀고 성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전공의 시절,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다가오면 저의 마음은 늘 소록도로 향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몇 번 그곳 미사에 참례할 수 있었는데, 모처럼 소록도성당을 향하는 길은 그러나 너무나 멀고 험하였지요. 그리움 속에 출발할 때와 달리 힘든 여정 중에는, ‘굳이 소록도까지 가서 미사 해야 하나?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스럽게 가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소록도성당에 들어가 앉고, 미사가 시작되고 나면 마치도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드디어 영성체 시간, 저는 깨닫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길 고생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준 게’ 아니라, 그분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임을. 저는 그저 ‘예, 제가 왔습니다.’ 하고 작은 대답을 드린 것뿐임을.

2018년 10월 저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에티오피



김용민 베드로 | 정형외과 의사

아의 서남단 오지 감벨라에서 파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 성당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서 ‘주일미사는 포기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흐를 즈음 숙소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성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파견 6주 차에 어렵사리 주일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당 문을 들어서서 보니 그곳은 십자가 대신에 큰 성화에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는데 현지인들과 같은 검은 피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소록도에서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에게 “나는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회 등으로 짧은 기간 외국에 다녀올 때도 가능한 현지 성당 미사에 참례합니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서 성당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간 미사에서 받는 느낌은 매번 한결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통해 제가 성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공동번역성서 요한 15,9)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차경옥 베로니카
논현동성당



신앙의 용사 김대건 탄생 200주년 탄생(삶), 순교(죽음), 성인(부활)의 의미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올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의 본달인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은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단 그분 생일인 8월 21일이 한여름인 8월에 들어가 있고, 그분의 서품 기념일이 8월 17일입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폐레올 주교, 다클뤼 신부와 함께 라파엘호를 출범시킨 날이 8월 말일인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신 날이 8월 26일이고, 조선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한글 편지 역시 그즈음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대건 신부님은 한 여름인 8월의 사나이요, 더위와 고난을 물리치는 신앙의 용사라 하겠습니다.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 에리곤호의 통역 임무를 통해 신덕(信德)이 더하여졌고, 부제 서품 후에 성직자가 되어 용덕(勇德)이 더하여졌습니다. 이 신덕과 용덕을 합쳐 놓으면 바로 신앙의 용사가 되고, 주님의 용사가 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중에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뜻을 잘 되새겨야 최민순 신부님이 가사를 지은 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서라벌 옛터전에 연꽃이 이울어라. 선비네 흰 옷자락 어둠에 짙어갈 제 진리의 찬란한 빛 그 몸에 담뿍 안고 한 떨기 무궁화로 피어난 님이시여” 경주 서라벌의 불교 국가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시대도 지나가고, 선비의 나라 유교의 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 복음을 안고 들어온 사제는 바로 한 송이 무궁화로 상징되는 한국인 첫

사제입니다.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의 무궁화(無窮花)로 김대건 신부님을 표현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승가리 언저리에 고달픈 몸이어도 황해의 노도엔들 꺾일 줄 있을소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승가리’는 송화강의 만주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육로로 조선을 오갈 때 반드시 송화강을 지나 그 언저리에서 쉬기도 하고 강을 바라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노골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뚝단배를 끌고 황해를 건널 때 그 ‘성난 물결(노도, 怒濤)’도 김대건 신부님의 선교 여정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8월에 태어난 김대건 신부님은 9월에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십니다. 신앙의 용사로서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 가운데 사형 직전의 마지막 강론만큼 강렬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을 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의 달 8월을 맞이하여 삶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우리 생명의 물 오염과 남용을 막고, 가난한 이들을 돌봅시다!”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의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 그리고 이 물을 담고 있는 땅과 대기, 강과 바다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습니까?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맹독성이며 방사능이 있습니다.”(21항)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오염으로 해양이 빠르게 산성화되어서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해안이나 그 근접 지역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거대 도시가 해안 지역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상승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4항) “깨끗한 식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 그리고 육상과 수생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적절한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특정한 광업, 농업,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로 지하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28-29항) 그리고, “세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와 화학제품들이 계속해서 강,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29항) 있음을 지적하며, 오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자고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호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① 쓸 때는, 아껴 씁니다

물을 아껴 씁니다. 화장실 변기에 사용되는 물 사용을 줄입니다. 샤워와 목욕 시간을 줄입니다. 가능한 한 일회용 생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버릴 때는, 줄여서 버립니다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오염된 물질을 하수도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적정량을 만들어 물 사용량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릇에 묻은 식용유는 휴지로 먼저 닦은 후 씻습니다. 자연 친화적 청소용품을 사용합니다.

③ 볼 때는, 불법을 잘 살피고 제도 정비로 이어나갑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알립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오염수로 피해를 보는 지역 등, 오염 지역에 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힘을 실습니다. 오염 물질을 지속해서 방출하는 시설들은 이용하지 않고 관련 기관의 관리를 촉구합니다.

④ 말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도록 합시다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을 제대로 만들도록 여론을 형성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교회 안팎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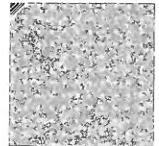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8월 20일(금)에 교구 사제 인사이동을 발표했습니다.
발령받은 사제들은 8월 31일(화)까지 새임지로 부임합니다.

이름	전 임지	새 임지	이름	전 임지	새 임지
주수욱 신부	등촌3동 본당 주임	원로사목사제	박규흠 신부	명일동 본당 주임	제14 동작지구장
이성운 신부	압구정동 본당 주임	창동 본당 주임	박준호 신부	거여동 본당 주임	정직
장동하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휴양	유인창 신부	중화동 본당 주임	흑석동 본당 주임
김준철 신부	안식년	신천동 본당 주임	전 원 신부	도봉산 본당 주임	제5 노원지구장
서경룡 신부	안식년	압구정동 본당 주임	송차선 신부	용산 본당 선교담당사제	국내수학
소원석 신부	안식년	행당동 본당 주임	김영춘 신부	제주 엠마오의 길 연수	안식년
임승철 신부	제9 강동지구장 (겸) 천호동 본당 주임	안식년	이윤현 신부	아현동 본당 주임	노원 본당 주임
송재남 신부	제5 노원지구장 (겸) 노원 본당 주임	제주 엠마오의 길 연수	고준석 신부	안식년	혜화동 본당 주임
홍기범 신부	제4 종로지구장 (겸) 혜화동 본당 주임	안식년	최철영 신부	상도4동 본당 주임	안식년
심홍보 신부	수색 본당 주임	등촌3동 본당 주임	이상용 신부	정직	대기
이기현 신부	둔촌동 본당 주임	안식년	홍상표 신부	가락시장 (준)본당 주임	수색 본당 주임
봉재종 신부	안식년	신정동 본당 주임	박기석 신부	ACN 한국지부장 및 지도신부	겸)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록(미카엘) 신부	제6 도봉-강북지구장 (겸) 창동 본당 주임서리	면) 창동 본당 주임서리	이태석 신부	중견사제연수	노인요양병원 사목 준비
김찬회 신부	안식년	명일동 본당 주임	김재화 신부	교포사목	시흥5동 본당 주임
전종훈 신부	휴양	원로사목사제	최양호 신부	안식년	베드로사목연수
원충연 신부	행당동 본당 주임	사당동 본당 주임	이형전 신부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답당
김연중 신부	국내수학	사목국 상설고해	허석훈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베드로사목연수
권홍식 신부	안식년	풍납동 본당 주임	김 현 신부	로마 한인신학원 부원장 및 재정담당	아현동 본당 주임
최승정 신부	안식년	사제평생교육원 연구위원	유 청 신부	중견사제연수	대신학교
강문일 신부	시흥5동 본당 주임	천호동 본당 주임	남상근 신부	대신학교	베드로사목연수
여인영 신부	사당동 본당 주임	안식년	최정준 신부	남대문시장 (준)본당 주임	도봉산 본당 주임
이영우(요셉) 신부	풍납동 본당 주임	제9 강동지구장	유현상 신부	베드로사목연수	거여동 본당 주임
김형석 신부	신정동 본당 주임	둔촌동 본당 주임	이광휘 신부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해외선교
권태형 신부	제14 동작지구장 (겸) 흑석동 본당 주임	안식년	이기안 신부	베드로사목연수	중화동 본당 주임
정성환 신부	신천동 본당 주임	제4 종로지구장	이영제 신부	사목국 기획연구팀	베드로사목연수
조대현 신부	은총의 집 담당사제	가락시장 (준)본당 주임	박홍철 신부	해외유학	베드로사목연수
한상호 신부	중견사제연수	용인공원묘원 영성담당	강진형 신부	베드로사목연수	사회사목국 병원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규(프란치스코) 신부	청계시장 (준)본당 주임	상도4동 본당 주임			

이 름	전 임 지	새 임 지
이태철 신부	정직	베드로사목연수
이정훈 신부	베드로사목연수	남대문시장 (준)본당 주임
이재일 신부	베드로사목연수	청계시장 (준)본당 주임
박재홍 신부	베드로사목연수	신천동 본당 부주임
백충열 신부	사목국 직장사목팀	베드로사목연수
장경진 신부	국내수학	교구 사무처 행정실장
신현우 신부	문정동 본당 부주임	휴양
우연호 신부	교구 사무처 행정실장	베드로사목연수
김강서 신부	신천동 본당 부주임	로마 한인신학원 재정담당 겸) 로마 한인성당 부주임
신동진 신부	등촌3동 본당 부주임	문정동 본당 부주임
진현구 신부	교포사목	역삼동 본당 부주임
윤병우 신부	정직	대기
유상혁 신부	역삼동 본당 부주임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박도진 신부	신내동 본당 부주임	압구정동 본당 부주임
김원철 신부	휴양	잠원동 본당 부주임
박준병 신부	잠원동 본당 부주임	녹번동 본당 부주임
이선호 신부	목동 본당 부주임	제주 엠마오의 길 연수
유동철 신부	해외선교	등촌3동 본당 부주임
나연수 신부	반포4동 본당 부주임	목동 본당 부주임
김진하 신부	장안동 본당 부주임	반포4동 본당 부주임
서 웅 신부	삼성산 본당 부주임	신정3동 본당 부주임
문병현 신부	군종	교포사목
김광두 신부	압구정동 본당 부주임	사목국 기획연구팀
양재모 신부	군종	사목국 직장사목팀
홍용택 신부	군종	장안동 본당 부주임
한승진 신부	군종	삼성산 본당 부주임
송제원 신부	군종	국내수학
진 강 신부	녹번동 본당 보좌	임상사목교육
김용찬 신부	국내수학	잠실 본당 보좌
백종원 신부	정직	대기
이 준 신부	해외유학	신내동 본당 보좌
박동환 신부	잠실 본당 보좌	휴양

I. 교구 법원 사제 임면

1. 부사법대리 · 재판관



면) 김강서 신부

2. 변호인

임) 오석준 신부, 황광욱 신부

II. 위원회 해체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조성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위원회를 해체합니다.

III. 위원회 위원 임면

1. 사제평의회

임) 정성환 신부(지구장)	면) 홍기범 신부
전 원 신부(지구장)	송재남 신부
이영우(요셉) 신부(지구장)	임승철 신부
박규흠 신부(지구장)	권태형 신부

2. 사제인사위원회

임) 이영우(요셉) 신부(동서울지역 대표 지구장)
면) 임승철 신부

3. 재무평의회 · 미사예물위원회 · 교구납부금위원회

임) 전 원 신부	면) 송재남 신부
김준철 신부	정성환 신부

4. 건축위원회

임) 조학문 신부	면) 황경원 신부
임인섭 신부	
황인환 신부	

5. 사목기금회

임) 이영우(요셉) 신부	면) 임승철 신부
박규흠 신부	권태형 신부

6. 경찰사목위원회

임) 동서울 김성민 신부 (중랑경찰서)	면) 박도진 신부
서서울 김진하 신부 (서초경찰서)	나연수 신부

7. 직원인사위원회

임) 장경진 신부

면) 우연호 신부

8. 본당분할장기계획수립위원회

임) 이영우(요셉) 신부(동서울지역 대표)

면) 임승철 신부

※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V. 사목상담팀 신설

다양한 분야의 상담 사목 신부들로 구성된 사무처 소속의 ‘사목상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임) 흥성남 신부(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소장)

문종원 신부(사목상담)

한상호 신부(용인공원묘원 영성담당)

V.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담당사제 임면

1.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체나콜로 봉사회

임) 신동원 신부

면) 서상범 주교

2. 수아비스(Suavis) 합창단

임) 강신구 신부

면) 정구평 신부(예수회)

3. 한국 콜럼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

면) 서상범 주교

4.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

임) 김시몬 신부

면) 이주형 신부

5. 가톨릭 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협의회

임) 김시몬 신부

면) 이주형 신부

6.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어린이 사도직 운동

임) 김시몬 신부

면) 이주형 신부

VI. 동서울지역 레지아 본당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풍납동	천호동

※ 레지아 영적지도 신부는 천호동 본당 주임신부가 맡습니다.

VII. 본당명 개명

지역	변경 전	변경 후	승인
동서울	면목4동	용마산	2021년 3월 31일

VIII. 중서울지역 성인교육담당 임면

임) 이도행 신부

면) 전 원 신부

IX. 특수사목사제관 담당사제 임면

1. 성 김대건관

임) 박종수 신부

면) 김정환 신부

영혼의 벗

김대건
최양업을
만나다

21.9.3 —— 9.16

영혼의 벗, 김대건·최양업을 만나다

2021년 9월 3일 ~ 9월 16일, 갤러리1898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문의: 02)727-2336, 7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 탄생 2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의 기둥이신 두 사제의 삶과 영성을 표현한 작품 전시 <영혼의 벗, 김대건·최양업을 만나다>가 서울대교구 갤러리1898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다양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작가로서 참여했으며 회화, 조각, 공예,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성미술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현존하는 국내 최초 성화로 꼽히는 고(故) 장발 화백의 ‘김대건 신부’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가톨릭평화 방송과 협업하여 작품의 제작 과정과 의미, 작품의 모습, 작가들의 묵상을 담은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대교구 묘원 추석 성묘 안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미사 참석 인원을 선착순 40명(수용 인원의 10%)으로 제한합니다(일행당 2인까지 신청, 추후 단계 조정에 따른 인원 변동 가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1) 천주교 용인주도공원 추석 성묘 안내

미사: 9월 19일(주일) 10시 /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승차권 예매: 8월 30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2만 원-좌석 띠어앉기로 인한 조기 마감 및 차량비 변동 가능)

계좌: 우리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마스크 미착용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
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

니다(추후 알림 예정).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추석 성묘 안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미사 참석 인원을 선착순 60명(수용 인원의 10%)으로 제한합니다(일행당 2인까지 신청, 추후 단계 조정에 따른 인원 변동 가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및 도립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미사: 9월 19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식사 및 성묘-개별준비

미사관련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마스크 미착용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은 미사에 참석
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 인원이 변
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후 알림 예정).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8년 9월 5일 김제근 토마 신부(46세)
- 1991년 9월 5일 고비오 비오 신부(29세)
- 1999년 9월 1일 봉경종 요한 신부(44세)
- 2003년 9월 2일 김승훈 마티아 신부(64세)
- 2008년 8월 30일 최주호 대건안드레아 신부(59세)
- 2019년 8월 30일 김대성 바오로 신부(94세)

교구청일정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특별기획전: 전관

‘영혼의 벗, 김대건 · 최양업을 만나다’

전시일정: 9월3일(금)~16일(목)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금)~26일(일)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8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서사국 ‘성서못자리’ 2021 후반기 강좌/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9월1일(수)까지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10시30분~12시30분)

때, 곳: 9월6일~12월13일 매주(월), 명동대성당 내 강의실(15주 강의)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개강미사: 9월6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정기강좌’ 총 3년 과정(입문부터 5권까지 순차적 수강)

입문	김성민 신부	3권	이현섭 신부
1권	김수규 신부	4권	김문화 신부
2권	김요한 신부	5권	김광두 신부

‘나눔터학교’ 정기강좌 졸업자 및 봉사자 대상
요한복음

이주형 신부

2) 청년, 직장인 성서못자리(19시30분~21시)

때: 9월8일~12월15일 매주(수) 15주 강의

청년 대마오복음(이주형 신부) / 곳: 범우관 408호

대상: 35세 미만 청년 / 회비: 5만원(교재 지급)

입문(이스라엘 역사, 김덕재 신부) / 곳: 영성센터A203호

대상: 일반 신자 / 회비: 8만원(교재 지급)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 tcpc@seoul.catholic.kr

가톨릭 성을악아카데미 가을학기 모집(성을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8월2일(월)~27일(금)까지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가을 학기	실기전문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기획 · 작곡 · CCM · 관악기 · 협약기 · 바로크악기 · 국악
	과정	그레고리오성가(남 · 여)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앙상블	

제39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온라인 교육)

대상: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할 신자, 수도자, 성직자 / 방법: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의, 나눔, 과제(녹화영상 강의 시청 등)

때: 9월28일~11월23일 매주(화) 19시~21시(총 9회)

신청 방법 및 인원: 9월17일(금)까지 선착순 80명(웹사이트(www.ecocatholic.org) 내 생태영성학교 신청 및 입학원서 다운받아 작성,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로 제출 필수) / 문의: 02)727-2283, 2272(회비: 5만원)

9월28일 회칙‘찬비반으소서’서문 / 이승현 신부(온라인상관리기술본부 본부장)

10월5일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임미정 수녀(영일한도음의성모수도회,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10월12일 창조의 복음 / 백종연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0월19일 생태 위기의 근원들, 통합 생태론 / 박동호 신부(이문동성당 주임,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10월26일 접근법과 행동 방식 / 황인철 팀장(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11월2일 생태 교육과 영성 / 조경자 수녀(노동참수녀회, 노동생태영성의집 대표)

11월9일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본당 활동 / 홍태희 반석벗(경기도시농민회 활동부장)

11월16일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 이재민 신부(대치2동 당장 주임, 가톨릭대 김임교수)

11월23일 종교리 및 수료미사 / 교육생과 사제단

대학교사목부 대학생 예비자교리반 모집

때: 9월4일부터 매주(토) 15시30분~17시30분(3개월간)

세례식: 12월24일(금) / 대상: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마감: 9월3일(금)까지 / 곳: 청년문화공간[JU]동 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접수방법: 홈페이지(sfcs.or.kr)에서 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문의: 02)777-8249(sfcs@sfcs.or.kr)

주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가능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행을 청합니다 / 문의: 02)2269-0413

1)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때: 8월15일(일)~9월26일(일)

참여방법: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후 순례길을 걸으며 스템프 찍기, 완성한 여권은 ‘순교자성월을 닦는 미사’에 참여하여 재출하고 축복장 받기

2) 청소년, 청년 순례길로

대상: 만 16세~38세 청소년, 청년

때: 8월15일(일)~9월25일(토)

참여방법: ‘서울순례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이벤트 참여, 인증샷 발송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자세한 행사 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순교자의 영성을 기억하며 묵상하기 좋은 책

**신간 도서****함께 기도하는 밤**

외로이 버티고 있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이영제 지음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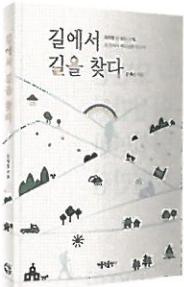
저자 이영제 신부가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알게 된 고민과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힘든 상황에도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기도 편지입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모두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간 도서****깊은 곳의 빛**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지음 | 14,000원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성경 일화를 통해 고찰하는 묵상집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 현실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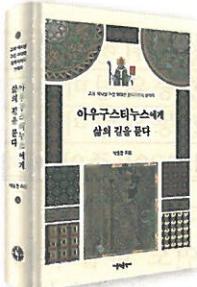
**신간 도서****길에서 길을 찾다(개정판)**

의지할 곳 없는 사제,
길 위에서 하느님을 만나다

| 문재상 지음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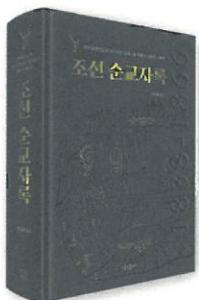
예수님처럼 40일을 광야에서 보내겠다는 큰 꿈을 안고 길에 올랐던 문재상 신부의 신학생 시절 여행기입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신부의 단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삶이라는 여행길에서 마주한 문제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간 도서****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개정판)**

1,600년 전의 현대인에게 배우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 박승찬 지음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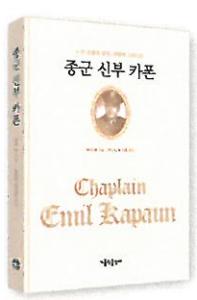
오늘날 우리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평생에 걸쳐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삶과 영성을 담아 큰 인기를 얻었던 스테디셀러가 새롭게 단장하여 나왔습니다. 이 책에 담긴 그의 답변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순교자 성월 추천 도서****조선 순교자록**

피로써 신양을 증거한 조선의 순교자,
그들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 아드리앙 로네 외 지음 | 26,000원

프랑스 교회사가의 눈에 비친 우리 선조들의 삶과 신앙은 어땠을까요? 이 책은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들의 삶과 신앙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순교자 성월 추천 도서****종군 신부 카폰**

전장 속의 순교자,
전장의 그리스도

| 아더 톤 지음 | 18,000원

먼 이국땅에서 파견되어 6·25 전쟁에 참전한 에밀 카폰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돌보아 전장의 그리스도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을 사목하여 하느님께로 이끈 카폰 신부를 통해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